

<2010년 7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제대로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2. 나에게 지혜와 총명의 시간이 있다. 그때는 자정을 바로 넘긴 새벽 시간이다. 과학적으로 그러한가? 아니다.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3. 한 번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래야 얻게 된다.
4. 묵상이 아니고 집중이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여 나에게 나오라.
5. 묵상 기도하지 말아라. 묵상 기도하면 졸린다. 절간이 아니다. 똑똑하고 자세하게 주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여라.
6. 주님은 기도할 때 옆에서 듣고 계신다. 주님의 생각대로 기도해야 통한다.